

Japan Weekly Digest

2012. 4. 21 ~ 2012. 4. 27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신일본제철, POSCO를 도쿄법원에 제소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경제산업성, 미래유망산업으로 의료·간병·신에너지 분야
- 일본기업들의 수출품 모조 방지 관련 사업
- 美 쇠고기 광우병 이슈, 일본의 대응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대한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신일본제철, POSCO를 도쿄법원에 제소

□ 제소 이유는 강판기술의 불법 취득

- 신일본제철이 포스코를 상대로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강판의 제조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도쿄지법에 민사소송 제기
- 신일철 측은 1000억엔의 손해배상과 고성능 강판의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는데,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와 제휴관계에 있으나, 이 분야는 향후 성장성이 높고 신일본제철이 가진 특허가 침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
 - 한국기업과는 과거에도 액정, 반도체 분야 등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자나 OB들의 기술유출이 지적되곤 했으나, 이번과 같이 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임
- 신일철이 19일, 포스코, 포스코 일본법인, 신일철의 전기술자를 대상으로 제소한 내용은, 포스코 측이 방향성 전자강판이라 불리는 변압기의 기간부품에 사용되는 강판의 제조기술을 전직 기술자를 통하여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것임
 - 포스코가 2000년대 후반부터 방향성 전자강판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강판생산 전부를 소송대상으로 하고 있음

□ 특허와 노하우의 차이

- 일반적으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특허를 취득하거나 제조 노하우는 극비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. 이번 케이스는 비공개 제조 노하우로 기술유출 의혹이 있어도 특허침해의 경우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어려움
- 신일본제철에 의하면, 포스코는 10년 걸려 400억원을 투입하여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신일본제철은 40년 이상 수백억엔을 투자했다면서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

□ POSCO는 신일철의 제소에 반박

-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, 포스코는 25일, 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, 소송에 적극 대응할 의사를 비침
 - 고급강판을 늘리고 있는 포스코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음

□ 신일철의 주장이 인정되면, POSCO는 강판 생산·판매를 중단해야

- 신일철은 미국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, 일련의 주장이 인정되면 포스코는 강판의 제조·판매를 할 수 없게 됨
- 방향성 전자강판은 세계적인 전력인프라 정비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

□ 점유율 경쟁을 위해 신일철이 POSCO를 견제

- 에너지 절약에서 우수한 제품의 생산규모는 전세계에서 연간 100만톤으로 신일철은 20~30%의 점유율로 수위를 확보. 최근에는 포스코도 20%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양사는 라이벌 관계에 있음
-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, 신일철은 동사의 제조기술을 포스코가 부정하게 취득한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어,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

□ 일본철강연맹 회장, 제소를 지지하면서 기술유출방지의 어려움도 지적

- 일본철강연맹 회장은(JFE스틸 사장)26일, 포스코를 상대로 한 신일철의 제소에 대하여 “일반론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으면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”고 하면서 신일철지지 발언
- 이와 동시에 “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의 책임”이라면서 기술보호대책의 중요성을 강조.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기술자의 퇴직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같은 기술유출방지대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, 만전을 기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언

□ 양사 간의 우호관계 변화 가능성

- 신일철은 소송 이외의 관계는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. 신일철과 포스코는 1998년에 자본제휴를 하였으며,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합작공장을 운영하는 외에 원료권익도 공동으로 취득
- 그러나 포스코와 신일철 양사 모두 세대교체로 인맥이 줄고 있어, 이번 사태가 미묘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일본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음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경제산업성, 미래유망산업으로 의료·간병·신에너지 분야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료·간병, 헬스케어, 신에너지 등의 미래유망산업이 2020년까지 약 10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시산결과를 발표
 - 헬퍼 등 간병 인력 외에 연구, 기술개발 등 전문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임
 - 경산성은 인재교육이나 전직 지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제조업에서 성장산업부분으로 인력이동을 촉진시킬 계획임
- 경산성이 23일, 개최한 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부회에서 공표한 시산결과에 의하면, 의료·간병은 269만명, 신에너지 서비스는 321만명, 헬스케어 등 개인 서비스가 308만명 증가
 - 한편, 제조업은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으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
- 성장산업에서 신규고용 등으로 실업률은 2020년에 4.6%, 2010년에 5.0%에서 0.4%포인트 저하
 - 산업간 인력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, 2020년 평균임금은 532만엔으로 2010년의 386만엔보다 40%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음
- 경제산업성은 인재교육에 역점을 두고, 전직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쉽도록 신용보증 확충 등으로 인재의 유동화를 촉진할 계획

□ 일본기업들의 수출품 모조방지 및 관련 사업

- 일본 중소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, 특수한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모조품을 방지하는 자구책을 서두르고 있음
 - 이와 동시에 제품에 식별코드를 붙이는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되고 있음
- 모조품의 범람은 단가하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책이나 관련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음

- 일본 특허청 조사에 의하면, 중소기업의 약 20%가 모방피해를 받고 있으나, 대기업들에 비해 해외에서 특허취득 노하우가 부족하여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없는 실정임
- 된장 등을 제조하고 있는 마르코메(주)는 모조품대책으로, 작년말부터 수출품의 패키지에 육안으로는 거의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식별코드를 인쇄하여 넣기 시작
 - 이것을 사용하여 시중에 모방품이 나돌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모조품을 발견되면 그 구입루트까지 추적할 수 있음
- 레이저 타각기를 제조하고 있는 아라이(주)도 자동차·가전부품 메이커에 타각기로 부착시키는 밀리 크기의 각의 코드에 도입
 - 반도체제조 공정관리에 사용하는 기법을 응용하여, 전용 해독기를 비추면 관리데이터가 표시되는 장치임
- 모조품의 출현으로 납품처에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, 자사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해둠으로써 제품가치 유지 등 자구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
 - 나사공급기를 제조하는 대무·루트공업(주)은 기간부품에 일본의 특정기업만이 제조할 수 있는 특수한 세라믹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투입. 내부에 자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, 금속부품을 사용한 모방을 할 수 없게 됨

□ 美 쇠고기 광우병 이슈, 일본의 대응

- 일본정부는 미국산 육우에 대한 수입규제를 현재 월령 20개월 이하에서 월령 30개월 이하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나, 완화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번 소는 수입대상이 되지 않음
- 광우병(BSE)문제는 TPP논의와 전혀 별개사안으로,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안전임을 강조하고 TPP논의 파급을 경계
 - 후지무라 장관은 “수입단계에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” 고 발언
-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규제는 WTO협정에 기초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, 일본정부가 TPP 논의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, 미국 의회가 일본의 TPP교섭참가 승인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써 미국산 쇠고기 확대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임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*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도요타통상	2012.4.21	천연가스	캐나다/엔카나	자본제휴/500억엔투자 광구 32.5% 권리 취득
NEC	2012.4.21	IT	스페인/인드라	업무제휴/클라우드컴퓨팅 사업 공동추진
도시바	2012.4.21	우라늄	캐나다/코비엑스	자본제휴/코비엑스의 전환사채 (3000만 달러)인수, 우라늄 정광채취 권리 확보
혼다	2012.4.22	자동차	중국/동풍기차 외	기술제휴/하이브리드자동 기반기술을 공여
구보타	2012.4.22	브레이크 패 드용 소재	캐나다	직접투자/투자규모 10억엔, 티탄산칼륨 공장 설립
스즈키	2012.4.24	이륜차	인도	직접투자/투자규모, 77억엔 연산 50만대의 이륜차 신규 공장 건설
일본전산	2012.4.25	모터	인도	직접투자/투자규모 99억엔, 자동차가전용모터 생산공장 건설
히타치화성	2012.4.25	프린트 배선 판재	말레이시아	직접투자/약 20억엔을 투자, 프린트 배선판 제조용 필름 증산
미쓰비시중공업	2012.4.25	디젤엔진	인도	자본제휴/합작투자기업에 추가출가, 출자비율이 90% 에서 96.8%로 상승
IHI	2012.4.26	EV충전장치	미국/벤처기업	기술제휴/비접촉급전기술의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
미쓰비시중공업	2012.4.27	절삭공구	미국/페더럴브 러치	직접투자/자동차용절삭공구의 세계시장점유율 15%인 회사 M&A
하서공업	2012.4.27	자동차내장품	말레이시아 /TSP	자본제휴/25%출자, 도어부품의 합작생산
TDK/쇼와전공	2012.4.27	고성능자석	중국/현지 자원 회사	자본제휴/합작투자로 희토류합 금공장과 고성능자석 공장 건설
마루베니	2012.4.27	농업기술	중국	기술제휴/일본식농업기술 판매

* 일본경제신문 발표일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- (1) 『국내 중소기업과 아시아의 일본계 제조업기업과의 관계구축』 오오사카부립 산업개발연구소, 4월24일

*출처: http://www.pref.osaka.jp/attach/1949/00096423/No.127_seizo-asia.pdf

- (2) 『변모하는 중국의 경제구조: 일본기업에 요구되는 대중전략』 21세기 정책연구소, 4월25일

*출처: <http://www.21ppi.org/pocket/data/vol21/index.html>

- (3) 『한일 신시대 지진을 넘어: 금후 한일관계와 협력방향』 경제광보센터, 4월 25일

*출처: <http://www.kkc.or.jp/pub/period/pocketedition/PE127.pdf>

- (4) 『중소기업백서(2012년판)』 중소기업청, 4월27일

*출처: http://www.chusho.meti.go.jp/pamflet/hakusyo/H24/PDF/h24_pdf_mokuji.html

- (5) 『기업연령과 주가』 일본은행, 4월27일

*출처: 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brp/ron_2012/data/ron120426a.pdf

- (6) 『이노베이션유니온스코어보드의 개요(2011년판), JETRO, 4월27일

*출처: http://www.jetro.go.jp/jfile/report/07000939/eu_innovation_union_scoreboard.pdf

- (7) 『ITS의 규격화사업 보고서』 일본자동차연구소, 4월27일

*출처: http://www.jari.or.jp/resource/pdf/O13_its/its_s10-1.pdf

- (8) 『모노즈쿠리산업의 이노베이션 촉진책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』 기업활력연구소, 4월27일

*출처: http://www.bpfj.jp/act/download_file/8428429/41806679.pdf